

##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오 정 수\*\*

이 연구는 지역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과 배분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금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기부행위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잠재적 기부자의 능력, 동기, 기회가 기부행위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모금과 배분에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쟁점들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7개 도시지역 일반시민 900명을 표본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16개 지역단위 공동모금회의 운영위원, 모금분과위원과 배분분과위원 등 23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금 행태에 관한 분석은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과 실태, 기부행위에 관한 분석과 함께, 모금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분석, 효과적인 사회복지 재정동원의 전략과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배분행태에 관한 분석은 배분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분석, 나아가 효과적인 배분방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41-C00466).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일반시민들의 기부문화와 동기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부동기를 유발하는 시민의식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기부자의 능력과 기부동기를 연결하는 전략의 개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를 연결하는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시민들의 기부문화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 타인이나 조직과의 관계에서의 권유가 중요한 기부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기회의 정도도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적인 모금전략으로는 첫째,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시키는 전략, 둘째, 안정적인 모금방법으로 직장모금의 정착, 셋째, 개별 사회복지기관과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간의 역할 조정, 넷째, 잠재적 기부자와 관련 있는 종교기관이나 단체, 직장과의 연계를 통한 모금방법이 공동모금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강조되었다. 배분전략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의 배분방법의 발전,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의의는 모금의 효과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 모금과 배분방법의 적절성을 향상시켜 공동모금회 모금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간모금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 1. 서론

1998년 사회복지 민간재정동원의 중추적인 기구로 출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1981년 이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정부주도 공동모금의 폐지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운용은 민간의 자발적 성금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영역에 민간의 성금이 투입되는 문제점과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출범은 민간 사회복지 재정동원을 정상적인 제도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공공부문의 제한되고

유연치 못한 서비스 공급기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자원개발과 서비스 공급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으로 평가된다(강철희, 1999).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일차적인 문제의식은 공동모금회의 출범이 갖는 민간복지 재정동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활동이 공동모금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금문화가 미성숙하여 모금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모금과 배분에 관한 일련의 사회적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자체의 전문적인 모금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매스컴에 의한 연말의 일시적 모금행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기부자의 유형별 모금액의 비율에서도 선진국에 비교하여 기부문화가 미성숙하여 일반시민의 참여비중(16.46%)이 낮고 기업이나 집단에 치우쳐 있는 것은 모금의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참조).

특히 연중모금의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려 있음에도 연말의 일회적 행사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시민과 기업체 등 잠재적인 기부자의 기부 동기와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모금전략과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 공동모금의 장점과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모금의 성과가 아직까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2〉 참조).

그리고 1998~1999년도의 사업성과에 의하면, 배분에 있어서도 다수의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별로 배분대상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생계보호에 많은 자금이 배정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지

〈표 1〉 기부자 유형별 이웃돕기성금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사회종교단체	기업체	개인 및 기타	총계
1999/2000년	2,397 (7.45)	5,465 (16.98)	19,030 (59.12)	5,299 (16.46)	32,191 (100.0)
1998/1999년	2,655 (15.57)	4,004 (23.48)	4,116 (24.14)	6,278 (36.81)	17,053 (100.0)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 2. 29).

〈표 2〉 모금방법별 이웃돕기성금의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모금방법	99/2000년	98/99년	증감
중 앙	신 문	1,634	2,017	-383
	방 송	3,733	1,454	+2,297
	기 타	12,323	303	+12,020
	소 계	17,690	3,774	△ 13,916
지 회	신 문	3,150	3,747	-597
	방 송	5,569	5,583	-14
	사랑의 계좌	4,232	2,559	+1,673
	기 타	1,543	823	+720
	소 계	14,494	12,712	△ 1,782
합 계		32,184	16,486	△ 15,698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 2. 29).

원이나 프로그램에 많은 자금이 배정), 행정 과시적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 사업에 과거의 관행에 의하여 공동모금 자금의 많은 비중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장기화될 경우 일반 시민의 모금 동기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배분 대상인구의 우선 순위, 시민운동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시설이나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분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16개 지역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 행태에 초점을 두고,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금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기부행위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잠재적 기부자의 능력, 동기, 기회가 기부행위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관하여 외국의 이론이나 연구결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모금 행태에 관한 분석은 기부행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함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과 실태에 관한 실태와 모금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분석,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 재정동원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분 행태에 관한 분석은 전국 공동모금회와 시·도 지회의 배분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배분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분석, 나아가 효과적인 배분방안의 제시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중요성은 모금의 효과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논리적 틀과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배분 행태의 적절성이 모금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민간모금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모금문화와 배분방향의 제시를 위한 분석은 민간모금에 관련된 공동모금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인 모금과 배분분과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의 통계적 분석결과와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모금과 배분실태에 관한 자료분석과 병행하여 지역단위 공동모금회 지회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인 모금분과 실행위원과 배분분과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시민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기부자의 기부행위와 태도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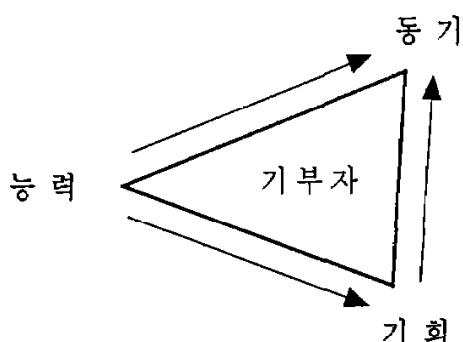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공동모금을 비롯한 비영리조직의 모금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주로 기부행위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dwards 등(1997)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부는 잠재적인 기부자의 능력(*capacity*), 동기(*motivation*) 및 기회(*opportunity*)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충분한 기부능력이 있는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한 명분 있는 목적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잠재적인 기부자에게 기부 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림 1〉의 세 가지 요인 중 기부행위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기부의 동기에는 종교적 신념, 동료나 친구의 압력, 기부로 인한 세금공제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Hodgkinson(1992)에 의하면, 미국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

〈그림 1〉 기부행위의 삼각 모형



〈표 3〉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행위의 동기

동 기	비율(%)
·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	55
· 기부와 자원봉사로 인한 개인적 만족	43
·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	41
· 사회에의 환원으로 얻는 이득	39
· 친구나 동료로부터 권유	36
·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 기관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34
· 타인에 대한 모범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31
·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의무 충족	19
· 자신이나 가족구성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17
· 세금의 감면을 얻기 위하여	12
· 고용주에 의한 권유	10

람들의 기부행위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11가지의 동기가 있다.

〈표 3〉의 기부행위의 동기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네 가지 동기는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감에 관련되었고, 그 다음의 네 가지 동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동기는 개인이 얻는 이득이나 혜택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부행위는 자원봉사 정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aplan (1995)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0%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행위를 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59%만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잠재적인 기부자를 자원봉사로나 위원회 활동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사회경제적 위치나 세금공제 등이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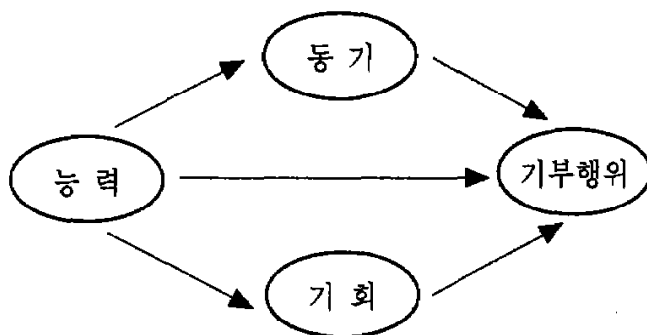
Panas(1984)는 고액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동기를 기부자 자신과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기부자들의 동기는 조직의 미션(mission)에 대한 신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시민적 자존감, 비영리조직의 재정안정, 직원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 지역의 비영리 조직에 배려, 비영리조직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의 헌신 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모금전문가가 보는 고액기부자의 기부 동기로는 조직의 미션에 대한 신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이사회나 위원회에서의 헌신, 기업을 위한 기회, 지역의 시설에 대한 배려 등의 순서로 그 중요도가 나타나고 있다.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는 또한 기부행위에는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영향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적 동기로는 개인적, 사회적, 부정적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I' 요인, 'We' 요인, 'They' 요인으로 표현되는 동기이다. 개인적 요인, 즉 'I' 요인은 자존감, 성취, 개인적 성장, 죄책감의 감소나 회피,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 추구, 개인적 이득, 영성 등이다. 사회적 요인, 즉 'We' 요인은 지위, 집단의 노력, 상호의존, 이타주의, 가족과 자손 및 권력 등이다. 부정적 요인, 즉 'They' 요인은 기부자가 경험하는 좌절, 상황에 대한 무지, 불안정, 공포와 불안, 복잡성 등이다. 기부자들은 모금과정에서 존중을 받고, 조직의 미션에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가치나 동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때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기는 모금의 실패를 가져온다.

외적인 영향도 보상, 자극, 상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 보상이란 인정이나 기타 개인적, 사회적 이득을 의미한다. 자극은 인간의 욕구, 개인적 요청, 비전, 사적인 주도성, 효율성과 효과성, 조세공제 등이다. 상황은 개인의 참여, 계획과 의사결정, 동료의 압력, 관계망, 가족의 참여, 문화와 전통, 역할의 정체성, 가처분 소득 등이다. 기부행위에 관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비영리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은 동기와 기회이다.

요약하면, 성공적인 모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를 동기화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기를 직접적인 기부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보상, 자극, 상황을 모금전략과 배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기부행위의 기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기부행위의 분석틀



## 2) 기부행위의 분석틀과 연구문제

모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기부자의 능력, 동기, 기회가 기부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관한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은 앞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그림 2〉와 같은 기부행위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기부행위의 분석에서는 능력과 기부금액, 기부동기와 기부금액, 기회와 기부금액, 능력과 동기, 능력과 기회간의 관계가 분석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문제 1. 일반시민들의 능력, 기부동기, 기회는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모금과 배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정책결정집단의 모금과 배분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실증적 분석결과는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의 전략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주는가?

## 3) 연구 방법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기부행위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이다. 그리고 모금과 배분에 관한 정책결정과 쟁점분석을 위하여 각 지역권에서 모금과 배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 단위 지회조직을 중심으로 모금과 배분의 정



책결정에 참여하는 전국 16개 지회의 운영위원, 모금분과와 배분분과의 실행위원 전원이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모금의 실태에 관한 분석, 둘째, 배분의 실태에 관한 분석, 셋째,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론적 모형의 분석, 넷째, 모금과 배분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분석, 다섯째,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 방안 제시.

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과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지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모금 활동으로 정의된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한 모금과 배분실태와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 제시로 하며, 기타 사회복지 개별기관에 의한 모금과 배분 실태분석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모금회와 이들 개별 기관간의 모금 협력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직의 활동기간과 내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6개 지회의 모금과 배분실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의 실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운영위원, 모금과 배분분과위원 우편 설문조사, 기부자 면접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기부자의 기부행위와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중소도시인 마산, 청주지역의 일반시민과 기부행위 참여자를 유의표집하여 면접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 1,010명의 설문내용 중 설문내용이 유효한 설문지 900매를 분석하였다. 유의표집 방법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4개 지역과 중소도시 2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고, 설문대상은 20대 이상 60대까지 연령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조사원을 사전교육하여 각 지역별로 나누어 무작위로 일반시민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기부행위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1999년 12월~2000년 5월중에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 표본조사와 병행하여 지역단위 공동모금회 정책결정집단인 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위원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모집단은 운영위원, 각 지회별 모금분과, 배분분과 실행위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운영위원과 분과 실행위원에 대

한 조사는 2000년 5월~6월중에 실시하였다. 발송된 설문지 500매 중 회수된 설문지는 230매였으며(회수율 46.0%), 회수된 설문지 230매를 통계분석하였다.

셋째, 각 모금기관들의 1998~1999년도와 1999~2000년도 활동자료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자료분석에 의한 모금과 배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의 방법은 SPSS 9.0 for Windows의 통계적 절차에 의한 분석으로 기술적 통계, 상관관계 분석, 평균비교(T-test), 교차분석(Crosstabs), 일원변량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 3. 분석 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

연구대상(일반시민, N=900)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일반시민의 특성에서 나타난 성별은 남 51.2%, 여 48.8%, 학력은 대졸 50.7%, 고졸 34.4%, 중졸 5.9%이며, 종교는 기독교 25.4%, 불교 25.2%, 천주교 12.3%의 순서이다. 연령은 20대가 39.7%, 30대 25.4%, 40대 15.1%, 50대 9.8%의 순이며, 직업은 학생 22.0%, 사무직 19.6%, 전문직 17.0%, 주부 12.3%이며, 자영업 5.0%이며, 거주지역은 서울 26.9%, 부산 11.4%, 대구 9.3%, 대전 16.8%, 광주 12.4%, 마산 15.6%, 청주 7.6%이다. 월평균 가족소득은 202.36만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성금총액은 9.41만원이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모금분과 및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대상(정책결정집단, N=230)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40대 미만 20.4%, 40대 39.6%, 50대 25.7%, 60대 이상 14.3%이며, 공동모금회 소속은 중앙모금회 9.1%, 특별시/광역시 단위 지회 28.7%, 도 단위 지회 58.3%, 직업은 민간복지 관련 기관 임직원 40.9%, 대학교수 17.4%, 공동모금회 사무국 직원 18.3%, 기타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등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23.5%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복지의식을 분석한 결과, 불우이웃에 대한 책임의 소재로서 지역사회, 국가, 가족과 친척, 개인과 가족의 순서로 지적하여 두 집단간의 복지의식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표 4〉 연구대상(일반시민)의 일반적 특성 (N=900)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61	51.2	연령	20세 미만	50	5.6
	여	439	48.8		20-29세	357	39.7
학력	국졸이하	23	2.6		30-39세	229	25.4
	중졸	53	5.9		40-49세	136	15.1
	고졸	310	34.4		50-59세	88	9.8
	대졸	456	50.7		60세 이상	39	4.3
	대학원	55	6.1		무응답	1	0.1
	무응답	3	0.3	지역	서울	242	26.9
결혼상태	기혼	422	52.3		부산	103	11.4
	미혼	459	45.8		대구	84	9.3
	기타	17	1.7		광주	112	12.4
	무응답	2	0.2		대전	151	16.8
종교	기독교	229	25.4		청주	68	7.6
	천주교	111	12.3		마산	140	15.6
	불교	227	25.2	가족 소득 1)	50만 미만	18	2.0
	기타	24	2.7		50-100만	167	18.6
	종교 없음	308	34.2		100-150	199	22.1
	무응답	1	0.1		150-200	206	22.9
직업	전문직	153	17.0		200-250	58	6.4
	관리직	43	4.8		250만 이상	183	20.3
	사무직	176	19.6		무응답	69	7.7
	판매서비스	23	2.6	연간 기부총액 2)	1만 미만	227	25.2
	생산직	33	3.7		1-5만	278	30.9
	자영업	45	5.0		5-10만	100	11.1
	주부	111	12.3		10-50만	113	12.6
	학생	198	22.0		50-100만	10	1.1
	무직	53	5.9		100만 이상	9	1.0
	기타	59	6.6		무응답	163	18.1

1) 평균 202.36 표준편차 142.92

2) 평균 9.41 표준편차 21.47

〈표 4-1〉 연구대상(정책결정집단)의 일반적 특성 (N=230)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연령	40세 미만	47	20.4	직업	대학교수	40	17.4
	40-50세	91	39.6		민간기관 임직원	94	40.9
	50-60세	59	25.7		사무국 직원	42	18.3
	60세 이상	33	14.3		기타	54	23.5
소속 공동 모금회	중앙	21	9.1				
	시 단위	66	28.7				
	도 단위	134	58.3				
	무응답	9	3.9				

〈표 5〉 복지의식의 비교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

복지의식	구분	일반시민 (N=900)		정책결정집단 (N=23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책임		55	6.1	13	5.7
가족과 친척 책임		25	2.8	10	4.3
지역사회 책임		539	59.9	140	60.9
국가 책임		266	29.6	67	29.1
무응답		15	1.7	-	-

## 2) 기부자의 능력, 동기, 기회와 기부금액에 관한 분석 결과

기부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학력, 직업, 가족소득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고, 기부참여의 유형과 동기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복수로 응답된 기부참여의 동기는 개인차원의 경우, 가난한 자를 도움(55.6%), 개인적 만족(58.7%), 종교적 신념(35.3%), 사회환원의 이득(31.2%), 타인에 대한 모범(26.0%),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28.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차원의 기부참여의 동기는 가난한 자를 도움(35.7%), 개인적 만족(34.0%), 종교적 신념(27.5%), 사회환원의 이득(20.2%), 타인에 대한 모범(14.6%), 고용주·단체의 권유(14.6%)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기부참여의 유형과 기부동기

기부동기	참여유형	개인 차원 (N=530)		회사·단체 차원 (N=314)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X1 (가난한자를 도와야함)		291	55.6	110	35.7
X2 (개인적 만족)		314	58.7	107	34.0
X3 (종교적 신념)		187	35.3	89	27.5
X4 (사회환원의 이득)		158	31.2	64	20.2
X5 (친구·친지의 권유)		75	13.4	35	10.2
X6 (기관의 지원과 유지)		108	18.6	45	14.0
X7 (타인에 대한 모범)		142	26.0	46	14.9
X8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147	28.9	64	19.3
X9 (자신과 가족을 기념)		26	4.4	5	1.5
X10 (세금 감면)		12	2.5	12	3.5
X11 (고용주·단체의 권유)		30	5.4	50	14.6

〈표 7〉 능력(학력, 직업, 가족소득)에 따른 연간평균 기부금액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 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value	Sig.
학 력	중졸 이하	55	4.31	5.90	3.256	0.021
	고 졸	255	7.43	19.99		
	대 졸	379	10.84	22.93		
	대학원 이상	47	14.60	26.62		
	계	736	9.41	21.48		
직 업	전 문 직	129	14.30	24.58	4.650	0.000
	관 리 직	34	10.56	17.67		
	사 무 직	157	12.79	25.78		
	생산·판매서비스직	44	4.09	3.87		
	자영업·농어민	42	10.93	24.59		
	주 부	93	12.09	29.80		
	학 생	154	2.83	4.09		
	무직 및 기타	80	5.97	17.12		
계	733	9.40	21.51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145	4.46	5.88	3.897	0.004
	100-150만원 미만	178	8.93	13.66		
	150-200만원 미만	174	11.74	28.65		
	200-250만원 미만	51	16.14	39.72		
	250만원 이상	152	10.27	18.44		
	계	700	9.52	21.30		

능력에 따른 연간 기부금액 평균을 일원변량분석(ANOV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능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변수인 학력, 직업, 가족소득에 따라 각각 집단간에 연간 기부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는 전문직, 사무직, 주부, 자영업, 관리직, 생산직, 학생 등의 순서로 연간 기부금액이 크다. 가족소득에서도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간 기부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동기에 따른 기부금액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각각의 기부동기는 응답과 미응답으로 처리되었으며, 기부동기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

<표 8> 기부동기별 연간평균 기부금액의 평균차이 비교

구 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value	Sig.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함	응답	330	10.34	23.92	1.261	0.208
	미응답	395	8.34	18.63		
개인적 만족	응답	365	10.47	23.27	1.592	0.112
	미응답	358	7.97	18.86		
종교적 신념	응답	242	14.10	28.37	3.670	0.000
	미응답	483	6.89	16.17		
사회환원의 이득	응답	181	8.53	24.48	-0.429	0.668
	미응답	541	9.30	19.67		
친구·친지의 권유	응답	95	9.18	9.23	0.038	0.969
	미응답	627	9.09	22.22		
기관의 지원과 유지	응답	125	9.84	26.26	0.429	0.668
	미응답	597	8.95	19.70		
타인에 대한 모범	응답	163	6.46	9.99	-2.721	0.007
	미응답	559	9.87	23.16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응답	174	8.43	19.29	-0.491	0.623
	미응답	548	9.32	21.48		
자신과 가족을 기념	응답	26	5.17	10.28	-0.976	0.329
	미응답	695	9.26	21.27		
세금 감면	응답	21	11.24	25.80	0.479	0.632
	미응답	700	9.01	20.82		
고용주·단체의 권유	응답	65	5.98	6.94	-2.830	0.005
	미응답	657	9.41	21.85		

부금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종교적 신념과 헌신, 타인에 대한 모범, 고용주나 단체의 권유였다. 이중 종교적 신념과 헌신은 응답자 기부금액(14.10만원)이 미응답자(6.89만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커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모범이나 고용주나 단체의 권유는 미응답자의 기부금액이 더 커서 응답자 본인의 기부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원봉사참여 기회 정도에 따른 연간 기부금액을 일원변량분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에 의하면,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따라 기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자원봉사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잠재적 기부자를 위한 자원봉사의 참여기회 정도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단체기부자 중 이웃돕기성금의 참여 기회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기부금액 평균의 차이 유무를 T-test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두 집단의 연간 평균 기부금액은 11.22만원과 6.55만원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value 3.60, df = 294, p < .01) 즉, 평소 이웃돕기성금의 참여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표 9> 자원봉사 참여기회와 연간평균 기부금액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기회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F-value	Sig.
일주일 1회 이상	58	14.44	33.08	2.709	0.029
한달에 1회 이상	90	12.04	20.98		
분기에 1회 이상	111	12.61	25.55		
1년에 1회 이상	151	8.70	20.90		
거의 없다	321	7.12	17.23		
계	731	9.47	21.54		

<표 10> 단체기부자중 이웃돕기성금 참여유무에 따른 기부금액 평균 차이 비교

성금 경험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value	df	Sig.
있다	199	11.22	27.74	3.60	294	.000
없다	97	6.55	14.44			

한편,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으로 표현된 복지의식에 따른 기부금액의 일원변량 분석 결과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전략에 관한 분석

#### (1) 모금에 관한 태도 분석

효과적인 모금방법에 대한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태도는 <표 1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1>에 의하면, 효과적인 모금방법에 관하여 제시된 문항 중 세 가지를 복수로 지적하게 한 결과, 일반시민은 ARS 모금(56.6%), 언론모금(41.9%), 개인별 성금(28.1%), 기관의 개별모금활동(26.5%), 특별행사(17.6%), 가두모금(4.7%)의 순서로 효과적이라고 본 반면, 정책결정집단은 언론모금(84.8%), ARS 모금(64.8%), 직장모금(17.4%), 기관의 개별모금활동(13.5%), 개인별 성금(7.0%), 특별행사(5.7%), 가두모금(1.3%)의 순서로 보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모금방법과 전략에 관하여는 정책결정집단에 대하여 조사되었으며, 정책결정집단(N=230)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모금방법으로는 직장별로 월급의 일정금액이나 비율을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직장모금이 30.4%로 가장 많고,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모금 27.0%, ARS 모금 15.7%, 기관의 후원자 발굴이나 개별모금 14.8%, 개인별 성금 8.3%, 특별행사 2.6%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표 11> 효과적인 모금방법

구분 모금 방법	일반시민 (N=887)		정책결정집단 (N=230)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언론모금	372	41.9	195	84.8
ARS 모금	502	56.6	149	64.8
직장모금	154	17.4	40	17.4
가두모금	42	4.7	3	1.3
백화점행사 등 특별행사	156	17.6	13	5.7
개인별 성금(은행지로방식)	249	28.1	16	7.0
기관의 개별모금활동	235	26.5	31	13.5
기 타	17	1.9	8	3.5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은 '언론과 대중 캠페인을 통한 기부문화 홍보'가 39.1%로 가장 많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31.4%, '기부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14.8%의 순서로 제안되었다.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중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에 대한 태도는 '개별 사회복지기관은 공동모금회의 모금 캠페인 기간을 피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62.2%로서 모금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33.9%에 비하여 다수로 나타났다.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기관의 임직원은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게 하는 직장모금 의무참여에 대하여는 찬성이 56.1%, 반대가 40.4%로 나타나고 있다(〈표 12〉 참조).

공동모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족 58.9%,

〈표 12〉 정책결정집단의 모금전략에 관한 태도(N=230)

변 수	구 분	빈도	비율 (%)	변 수	구 분	빈도	비율 (%)
강화되어야 할 모금방법	언론모금	62	27.0	집중모금기간 중 개별기관의 모금	동시모금반대	143	62.2
	ARS모금	36	15.7		동시모금	78	33.9
	직장모금	70	30.4		무응답	9	3.9
	특별행사	6	2.6	직장모금의 무참여	찬성	129	56.1
	개인성금	19	8.3		반대	93	40.4
	기관의 개별모금	34	14.8		무응답	8	3.5
	기타	3	1.3	모금의 미활성화 이유	참여의식부족	88	38.3
참여동기 유발전략	세제지원	72	31.4		낮은 소득수준	3	1.3
	사후관리	34	14.8		참여기회부족	26	11.3
	캠페인	90	39.1		동기유발부족	113	49.1
	참여방법 다양화	25	10.9				
	기타	8	3.5				
	무응답	1	0.4				

사회복지기관이 동기를 유발하지 못함 20.3%, 참여기회가 다양하지 못함 15.1%, 소득수준이 낮은 때문 4.9%의 순서인 반면, 정책결정집단은 사회복지기관이 동기를 유발하지 못함 49.1%로 다수이고 참여의식 부족 38.3%, 참여기회 부족 11.3%, 낮은 소득수준 1.3%로 지적되었다. 공동모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일반시민은 기부자 측면에서 찾고 있는 반면, 정책결정집단은 모금자 측면에서 찾고 있다.

### (2) 배분에 관한 태도분석

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에 관한 견해에 있어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은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35.9%, 불우이웃이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 15.7%이며, 두 가지를 절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48.4%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결정집단은 프로그램 지원이 83.6%로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직접적인 지원 16.1%인데, 이러한 응답은 두 가지를 절충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삭제하고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배분 대상인구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시민은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지역사회복지, 불우여성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정책결정집단은 아동,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복지, 청소년, 불우여성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두었다(〈표 13〉 참조).

### (3) 배분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분석

공동모금의 배분에 관하여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집단의 견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단체 등에 대하여 공동모금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사회복지계의 반대가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다. 이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책결정집단 응답자 225명 중 반대가 141명(62.4%)으로 찬성 85명(37.6%)에 비하여 우세하였다.

둘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인건비나 운영비만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운 미인가 시설 등의 형편을 감안하여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인건비나

〈표 13〉 배분기준과 대상인구에 관한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의 견해 차이

배분기준/대상		구 분		일반시민		정책결정집단		Chi-square	Sig.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배분기준	직접 지원	139	15.7	37	16.4	198.434	0.000		
	프로그램 지원	319	35.9	188	83.6				
	두 가지 절충	430	48.4	-	-				
	계	888	100.0	225	100.0				
배분대상	아 동	276	31.2	66	29.5	37.189	0.000		
	청소년	72	8.1	14	6.3				
	장애인	244	27.6	51	22.8				
	노 인	225	25.4	46	20.5				
	불우여성	15	1.7	6	2.7				
	지역사회복지	39	4.4	30	13.4				
	기 타	14	1.6	11	4.9				
	계	885	100.0	224	100.0				

운영비는 무조건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책결정집단 응답자 228명 중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운 시설의 형편을 감안하여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139명(61.0%)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무조건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89명(39.0%)에 비하여 우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배분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2000년도 배분기준 제6조 3항)과 다른 것이어서 배분기준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한 공동모금의 배분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책결정집단 응답자 226명 중 타 기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금이 사업수행에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모금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가 136명(60.2%)으로, 지원이 형평성을 감안하여 무조건 공동모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90명(39.8%)에 비하여 우세하였다. 이 결과도 동일한 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은 무조건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2000년도 배분기준 제6조 1항)과 다른 것이어서 배분기준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 4. 결론과 제언

### 1) 분석결과의 요약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요인과 동기요인, 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부참여의 동기는 개인차원의 경우, 개인적 만족, 가난한 자를 도움, 종교적 신념, 사회환원의 이득,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모범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단체차원의 기부참여의 동기는 가난한 자를 도움, 개인적 만족, 종교적 신념, 사회환원의 이득, 타인에 대한 모범, 고용주·단체의 권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능력에 따른 연간 기부금액 평균을 일원변량분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능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변수인 학력, 직업과 가족소득에 따라 연간 기부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부동기와 기부금액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기부동기는 종교적 신념과 헌신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일반시민들의 기부문화에서 종교적 신념과 헌신이 매우 중요한 기부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모금의 전략으로서 교회 등 종교단체와의 연계에 의한 방법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시민들의 일반적인 기부문화와 동기화 수준이 매우 낮고,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부동기를 유발하는 시민의식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잠재적 기부자의 능력과 기부동기를 연결하는 전략의 개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를 연결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참여 기회 정도에 따른 연간 기부금액을 일원변량분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따라 기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자원봉사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하였다.

단체기부자 중 이웃돕기성금의 참여 기회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기부금액 평균의 차이 유무를 T-test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의 연간 평균 기부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분에 관한 분석에서 배분의 우선 순위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이 직접적인 물질지원에 비하여 우세하고, 인구대상별로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

복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정책결정집단은 프로그램 중심의 배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모금과 배분에 관한 사회적 쟁점에 관한 정책결정집단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강화되어야 할 모금방법은 직장모금, 언론모금, ARS 모금 순서로 지적되었으며,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은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문화 홍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은 공동모금회의 집중모금기간을 피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배분에 관한 사회적 쟁점으로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반대가 많았으며, 인건비나 운영비만 신청하는 경우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 2)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전략을 위한 제언

위의 실증적 연구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문화와 배분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전략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모금전략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기부행위에 연결되는 사회복지 기부동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반시민들의 미약한 모금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문화 홍보를 강화하여 모금문화와 시민참여 의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부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은 일반시민이 자원봉사 등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역단위 공동모금에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모금방법으로 직장모금이 정착되어야 한다. 직업이나 직장은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음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 공동모금회

는 직장별 모금 참여의 활성화와 직장모금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헌신, 타인이나 조직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부동기임을 감안할 때, 잠재적 기부자와 관련이 있는 종교기관이나 기타 단체, 직장과의 연계를 통한 모금방법이 공동모금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과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간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중에 개별기관의 모금활동은 조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조된다.

첫째, 프로그램 중심의 배분은 공동모금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배분전략임이 일반시민과 정책결정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에 의하여 수행되고, 민간차원의 공동모금 배분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시설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본적 운영이 어려운 미인가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타 기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수행에 충분치 못한 경우의 지원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2001년 배분기준 제6조)에서는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참고문헌 ■

- 강철희. 1994. "미국 공동모금 기구의 기금배분 행동에 대한 연구: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8호.
- \_\_\_\_\_. 1999. "한국 모금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한국의 모금문화 현실과 선진화 방안》. 국회복지포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범수. 1999. "공동모금의 도입과 모금 확대방안."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 김성이·오정수·전광현·황성철. 1997. 《비교지역사회복지》. 동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ORKSHOP: 1999년 배분사업 평가 및 2000년 배분기준 수립》.

- \_\_\_\_\_. 2000.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ORKSHOP : 2000년 배분사업 평가 및 2001년 배분사업 협의》.
- \_\_\_\_\_. 2000. 2. 《‘희망 2000 이웃돕기 캠페인’ 결과보고서》.
- \_\_\_\_\_. 2000. 6. 《2001년 사회복지 배분신청 안내》.
- 이태수. 19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9년 배분사업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무성 역, 2000. 《비영리 기관의 모금》. 나눔의 집.
- 최일섭·류진석. 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Richard L. Edwards, Elizabeth A. S. Benefield, Jeffrey A. Edwards and John. 1997.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undraising for Nonprofits*. NASW.
- Broce, T. E. 1986. *Fund raising: The guide to raising money from private sources*(2nd e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Edles, L. P. 1993. *Fundraising: Hands-on tactics for nonprofit groups*. New York: McGraw-Hill.
- Gray, S. & Moore, J. 1996b, July 9. “Corporate-giving departments turn to ‘outsourcing’ to save money.”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7(19). p.18.
- Hammock, D. C. & Young, D. R. 1993. *Nonprofit organizations in a market economy: Understanding new roles, issues, trends*. San Francisco: Jossey-Bass.
- Hodgkinson, V. A., Weitzman, M. S., Noga, S. M., & Gorski, H. A. 199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 Huntsinger, J. 1982. *Fund raising letters: A comprehensive study guide to raising money by direct response marketing*. Richmond, VA: Emerson.
- Kaplan, A. E. (ed.). 1995. *Giving USA 1995*. New York: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 Meyers, R. S. 1989. *Financial management for nonprofit human service agencie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ixer, J. R. 1993. *Principles of professional fundraising: Useful foundations for successful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Nichols, J. E. 1990, August. “Philanthropic trends for the 1990s.” *Fund Raising Management*. 21(6). pp. 45~6.
- Panas, J. 1984. *Megagifts: Who gives them, who gets them*. Chicago: Pluribus Press.

## A Study on the Effective Fundraising and Distribution of Community Chest in Korea

Oh, Jeong-Soo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fundraising and distribution of the local community chest in Korea. Until now little empirical study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the culture of giving. Using the sample of 900 citizens selected from 7 cities and another sample of 230 from policy-making group in 16 local community chest, this study analysed empirically how the capacity, motivation and opportunity of the prospective donors are related to giving and the current issues of fundraising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level of motivation in giving culture is very low. Also it was found that religious beliefs is the most important motivating factor in giving.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o influencing giving.

Some effective fundraising strategies are suggeste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motivation of prospective donors, workplace donation and joint-fundraising with religious organization or other foundation, coordinating fundraising activities between the community chest and other social welfare agencies. Program-oriented distribution and change of some distribution standards are stressed as an effective distribution strategy.